

정미숙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김유정 · 윤혜경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생애 개요

정미숙은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육남매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고흥 읍내에서 큰 요릿집을 해서 유복했고, 아버지는 딸을 업고 밤낮으로 극장에 다니며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주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열너다섯 살 즈음 이모들이 있던 서울로 올라갔다.

스물셋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 스물여섯에 결혼해 나주 시댁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같은 해에 장녀를 출산하고, 사년 뒤인 서른 살에는 차녀를 출산했다. 서른두 살에 광주 두암동으로 이사했는데, 가난으로 인해 자주 옮겨다녀야 했던 경험을 자녀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집에서만 이십칠 년을 살았다.

서른여덟에 독학으로 시를 배워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를 출간했다. 마흔세 살에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하남공단에 서 하도급 업체 비정규직으로 이 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일했다.

2008년, 버스에서 일신방직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일신방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 갔던 곳은 공무원이었다. 남초(男超) 부서에 들어온 첫 여성노동자인데다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었던 터라 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이후로도 포장팀에서 삼개월, 생산1팀에서 지원업무 이년, 생산3팀에서 지원업무 등 부서와 담당 업무가 자주 바뀌며 걸돌고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포장3팀에서 실타래의 옷을 벗기는 스트리퍼 업무를 맡게 되고, 이 업무를 일신방직을 나올 때까지 계속했다. 일신방직에서 십년을 일했던 2018년에 일신방직 노동 경험을 담은 시집 『등에 핀 꽃』을 출간했다. 2019년에는 정년이 지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몇 달 되지 않아 제2공장이 있는 평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평동공장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위로금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는 회사측 요구대로 퇴사했다.

이후 큰딸이 있는 세종으로 이주해 시를 쓰고 유화를 그리며 살고 있다.

문화적 감성을 키우던 유복한 유년

고흥군 풍양면에서 태어나고 읍내에서 유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고흥 읍내에서 ‘월송옥’이라는 큰 요릿집을 했어요. 고흥 읍내에선 최초로 타일이 박힌 집이었어요. 현관문 유리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박혀 있었어요. 방이 대여섯 개 정도 되는 큰 요릿집이어서 어려서는 풍족했죠. 아버지는 당시 여수고를 나오신 상당한 지식인이셨거든요. 동네에서 신문의 한자를 읽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가 낮에도 밤에도 장사하셔야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업고 극장에 자주 다녔어요. 저 어릴 때는 읍내에 극장이 ‘세계극장’이랑 ‘고흥극장’이라고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고흥극장을 가고 저녁에는 세계극장을 가고 그런 아이로 성장해요. 극장에서 남진이 나팔바지 입은 사진도 보고 ‘닥터 지바고’ 영화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극장 다녔던 경험 때문에 시적인 감각이나 그림 그리는 영감이나 그런 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희 큰아버지께서 집안 장남이고 그러니까 동생인 아버지가 형님 대신 군대에 가신 거예요. 형님 이름으로 군대를 한 번 간 거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가 다녀오시는 당신이 갈 차례가 되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군필 거부자가 돼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 활동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엄마가 사십년을 식당일 해서 육남매를 다 키우시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일학년 때 쯤 엄청 몰락했거든요. 오빠 수학 가르쳐주는 입주 가정교사까지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서 엄마가 생선 장사도 하고 채소 장사도 하고 그랬죠. 셋방살이로 이사만 열 번을 다니고 신발이 찢어지고 없는데 신발 살 돈도 없었어요. 꽃신만 신고 다니다가 코고무신, 까만 고무신 있잖아요, 그 고무신도 떨어졌는데 까만 실도 없었나 봐요. 엄마가 하얀 실로 꿰매신 적도 있어요.

시대로 일하며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가기 전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먼저 서울에 올라갔고 저 가면서 자취를 했죠. 제가 열네 살, 열다섯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동생도 올라와서 오

빠까지 셋이서 자취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많이 아파서 내려가게 됐어요. 저는 저대로 이모 셋이 서울에 살아서 이모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뭐 회사 기숙사 같은 데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일했던 곳은 경기도에 있는 삼구통산이라고 일본에 수출도 하는 큰 의류회사였어요. 제가 하는 일은 보조였는데, 일본말로 시다라고 하죠. 일하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전 뺏속까지 노동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공이라는 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고, 그래서 이 노동에서 탈출하고 싶었죠. 그래서지 일을 일 년을 못 채우고 떠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그때는 그만뒀다가 재입사를 하고 쉬었다가 또 재입사하고 그게 반복됐어요. 그래서 기능도 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중요한지 어쩐지 몰랐어요. 왜냐면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미술전 관람 가고 영화관 가고 도서관 가고 그런 학구열이 너무 셋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딴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건 후회 안해요. 지금 나의 자양분이 돼 준 거니까.



20대 1980년대 즈음
활달한 성품이 드러난다.

스물세 살에 제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어요. 스물여섯 살에 남편과 결혼하고 큰아이가 태어나요. 결혼하면서 바로 나주에서 시댁살이를 일년 칠개월을 하고 삼십칠만 원 가지고 분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 딱 오년 만에 아파트로 왔어요. 남편 월

급 같은 거 꼬박꼬박 모아서 두암동 주공아파트 삼단지로 입주했거든요. 제가 어려서 집이 가난해지니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 큰아이만큼은 이사 안 다니고 전학 안 시키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애 일곱 살에 이사 와서 그 집에서만 이십칠 년을 살았어요. 저랑 아이들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된 버팀목이 된 집이에요.

시를 쓰기 시작하다



정미숙은 2000년에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를 펴냈다. 이듬해 정미숙의 시에 노의웅 화백의 그림을 더한 시화전을 개최했다.

2000년에 첫 시집을 내고 등단을 해요.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신인인데도 발문을 문병란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써주시기도 했고. 시집 나오고 일곡도서관하고 서구문화센터 초당대학교에서 강의했어요. 2001년도에 호남대 예술학장 하신 노의웅⁶⁰ 교수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서 시화전을 하게 돼요. 제가 이슈가 됐던 건 저하고 제 딸이 함께 출간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큰아이한테 오년 동안 일기를 쓰면 엄마가 일기집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 첫 시집하고 같이 동시에 모녀 출판을 했어요.

⁶⁰ 전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광주지역 중견 서양화가로 '노의웅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 출판 이후 일곡도서관, 초당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

저는 시 이론부터 시작해서 독학으로 시를 공부 했어요. 그림도 시도. 하루에 열세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빛나면서 엉덩이 아픈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무조건 시. 그렇게 파고들었죠. 그렇게 습작해놓은 걸 모아서 출간한 거예요. 근데 감성만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문흥지구에서 블루마운틴이라는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운영했어요. 레스토랑은 오년간 운영했는데 망했어요.



2000년, 광주 두암동 거주 시절 장녀 차녀와 함께 장녀와 함께 모녀 출판한 것도 이 시기이다.

서류에는 일한 흔적도 없는 파견 노동자

일신방직 들어가기 전에 이년 정도 하남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어요. 용역업체에서 소개해주는 대로 전자회사 하청업체 여기저기에서 일했어요. 플라스틱 성형되어 나왔을 때 그걸 박스에 싸는 일도 하고 삼성에 납품하는 에어컨 하도급 업체에서 드릴 박는 일도 하고, 뭐 이런 단순 반복 노동이었죠. 이 작은 손으로 이렇게 커다란 드릴로 계속 박아야 해요. 근데 그거를 빨리 못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용역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대하냐면 모집 광고가 떠오. 그러면 가잖아요? 가서 일할 만하면은 언제든지 거기서 “이제 필요 없다. 나가라” 하면 하루아침에 잘려요. 저는 어제까지 웃으며 지냈던 분이 일요일 밤에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전화한 적도 있어요. 정말 황당해요. 단두대 위에 세워놓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몰차게 잘라버려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용역업체에서도 수시로 ‘어디로 가라’고 연락해요. 그 얘기는 자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없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어요. 옷 갈아입는 겸 쉬는 공간이 있었는데, 오래 실까 봐 그랬는지 스티로폼 그런 거, 의자도 아니에요. 발판 같은 거를 쉬라고 놔두고 캐비닛 놔두고. 거기 사람들이 오분밖에 안 쉬는 거예요. 앉자마자 물 좀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한

사람당 오분 쉬는데 이 오분을 더 쉬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월급도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 말로 다할 수 없이 부러먹어요. 거기다 연말정산 하려고 서류 떼려고 하니까 저는 일한 흔적이 없었어요. 소득세 낸 적도 없고 사대보험 다 넣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가입 안 됐더라고요. 어디에도 제가 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유명인 거예요. 일을 다녔는데 (통근)버스 타고 다니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흔일곱 살 방직공장 신입사원

일신방직 들어갔던 때, 제 나이가 마흔일곱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십 대 중반이었는데 아들이 대학을 다녀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입사하게 됐어요. 그때는 버스에 항상 일신방직 사원 홍보, 그게 맨날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혹시 취업하지 않을까’ 하고 이력서를 써서 넣었죠. 면접 갔는데 그때 한 열 명 정도 모였었는데 제가 그 나이에 초 롱초롱했었나 봐요. 이십 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열 명 중에 우연히 그 경쟁을 뚫고 제가 선택된 거예요.

처음 간 곳은 공무팀이라고, 전기팀예요. 거기는 다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남자 사수들 따라 다니면서 처음 한 게 삼킬로짜리 연장통 차고 현장 돌면서 변전소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약 구십만 평에 여덟 군데에 있어요. 고압선이 흐르는 변전소에 번호 열쇠로 수십 군데를 열고 들어가 매일 아침 전기용량을 기록하고 계산하라고 지시를 받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일신방직이 엄청 넓었어요. 자전거가 없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걸 매일 돌려니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현장 판넬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아주 작고 또 글자도 작아요. 제가 시력이 1.2, 1.5 이랬는데 육개월만에 0.8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수들은 이십대, 삼십대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전공도 했고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자기들처럼 따라와 달래요. 이게 참……. 말도 못할 일들이 많았죠. 어느 날은 도면을 보래요. 내가 언제 도면을 봤겠어요. 그런데 그냥 외우래요, 공부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소문자 비(b)하고 디(d)하고 약간 헷갈리니까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한겨울인데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르치는 거

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말이었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수시로 펜치를 집어 던져서 펜치가 눈앞에 날아다니고 그랬다. 이걸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 사수가 저보다 엄청 어린데 “미숙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이 밑엿사람 편안하게 대한다고 “미숙씨”,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이고. 쫓아내기로 작정한 거였죠. 그런데 눈치 없이 난 배우려고 막 한 거야. 그때가 200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무조건 가서 나보고 고치래요. 비 오는 날에 목장갑 하나 끼고 기계를 고치라는 거예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가르쳐준 걸 기억해서 연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으니까 전기가 막 온 거예요. 전기가 온몸을 막 진동하고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그걸 아무런 사전 지식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어디서 숨어서 날 지켜봤겠죠?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에 사수하고 근무한 적이 있어요. 공장 천장이 한 사미터 정도 돼요. 거기 사다리를 타고 사미터 천장에 매달려서 형광등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거 한다고 하면서. 밑에서 잡아주든지 지도해주든지 해야 하잖아요. 뉴마브르⁶¹라는 문어 다리처럼 생긴 애가 지나 다니면서 풍면⁶²을 싹 흡수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계가 돌아요. 그게 약 사미터 천장 아래 기계가 부착되어 문어 다리처럼 두 개씩 붙어 빠른 속도로 다녀요. 그 기계 사이로 밤새도록 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삼미터 위에서 연장 삼킬로짜리를 매고. 여기 전구 바꾸면 저기서 뉴마브르가 올 거 아니에요. 오만 볼트인가 되는 알피엠(rpm)으로. 그럼 또 내려가는 거야. 발바닥 엄청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무섭기도 하고. 노동법에는 이인일조로 움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가고 나 혼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스위치가 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게 멈추거든요. 그걸 안 가르쳐준 거야. 이걸 누르라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게 얼마나 빠른데 그걸 혼자서 하라고……. 제 두 번째 시집이 『등에 핀 꽃』인데 거기에 수록된 시가 이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61 뉴마브르. D 형태로 된 트래블링 클리너.

62 風綿. 천을 짜는 과정에서 주변 먼지가 실에 붙거나 같이 얽혀 짜인 것.

등에 핀 꽃

애기 낳으러 들어가기 전

뒤돌아보게 한

땀물에 놓인 신발 내려다본

옛 어미들처럼

육중한 맨홀 뚜껑 열리며

맨홀 뚜껑 다시 쳐다보면서

계단으로 내려갔었지

허리에 3kg 무게의 연장통 차고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4m의 천장에 매달려

형광등 40개 바꾸던 시절

지금처럼 동작 스위치 버튼

한 번만 누를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서럽지 않았으리요

그 무시무시한 뉴마브르

제 할 일을 위해 거대한

문어 다리 이끌고

기계 사이사이 다니다가 사다리 덮쳐버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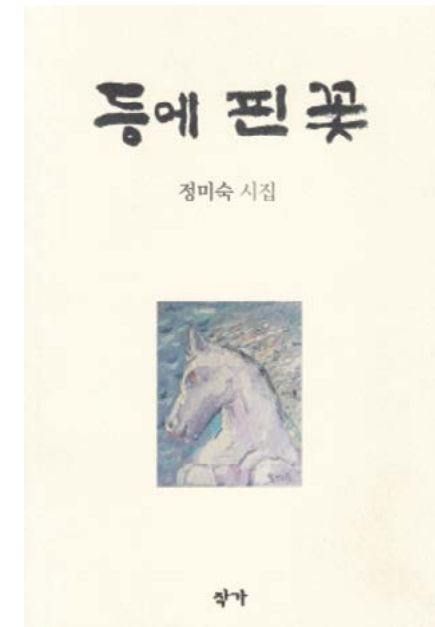
1분당 2만 6천 rpm 속도 기계 위에 낙상하여

백다섯 조각의 처형처럼

뽕뽕이 흩어진 육신
수습이나 할 수 있었을까
등에 핀 꽃
지옥문 넘나들기도 했었지

고장난 자전거 타고 달리다
어두운 빙판길 위에
나뒹굴며
더듬더듬
흩어진 부품들 찾을 때
자라지 못한 손톱마저
뚫고 뚫어져 시린 그 애처로움에
구름에 가려진 초승달마저
글썩이든 눈망을 되어
내려다보았지

여러 해 보내고 보니
귀신보다 무서운 게 졸음이요
뼈 마디마디에 전기 고문 같은 통증 남아
지금도
등에 꽃이 피고 있다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정미숙의 두번째 시집 『등에 핀 꽃』(2018)
일신방직의 노동경험을 담은 총 칠십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 내가 미꾸라지 어항 속의 장어구나’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항 속에 왜, 미꾸라지가 엄청 많아요. 미꾸라지들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생산성을 목표로 장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어한테 안 먹히려고 미꾸라지들이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미꾸라지가. ‘아, 그래서 나를 선택했구나’ 했죠. 처음에는 모르고 좋아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안 거예요. 회사에서는 시도한 거죠. 여성인 저를 하나 실험적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엄청 반대했죠. 자기들 보기엔 여자가 자리를 뺏은 거니까요. 그래도 처음엔 엄청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근사한 말로 엔지니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엄만 엔지니어가 됐다, 기계를 만진다” 하니까, 그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제2의 도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술 배워보려고 하고 연마를 하는데 점점 그게 아닌 거야. 주변에서 압박이 오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주변에서 “오늘도 출근했대?”, “아직도 안 그만뒀대?” 그랬더라고요. 제가 무뎌서 그런 걸 뒤늦게 알았어요. 차츰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에 (이직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버티보자’ 했어요. 왜냐면 회사 앞 사원 아파트를 여

사원에게 줄 수도 있대서 그럼 언제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독립할 수 있고 사대보험이 되니까. 특히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그래서 버티면서 팔개월쯤 일했는데 안 나가니까 저를 정말 최악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말도 하지 않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리 가라는 거야.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공장 떠돌이 인생

그렇게 간 곳이 포장팀이라고, 거기서는 개당 육킬로가 넘는 실을 하루에 몇천 개씩 포장하는 그런 데였어요. 하루아침에 거기로 저를 쫓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아무래도 일귀낸 게 없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이 키워야 하고 또 큰 아이는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고. 우리는 연속으로 네 살 터울이라 동시에 돈이 들어가는 짬이었고. 그때 당시에 남편과 이혼 단계여서 혼자 책임지고 가야 하니까 그만두지 않았는데, 그 포장하는 데서 제가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데로 보냈어요. ‘일 못한다’고 자르면 실업급여 줘야 하니까 다른 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생산1팀인데 거기서는 이것저것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보수 일도 했는데 일신방식이 일 년에 한두 번씩 보수공사를 해요. 헌 기계를 가지고 개조도 하기도 하고 땅을 파갖고 시설을 만들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조를 하라고. 아니면 회사 사람들 몇을 남자 둘에 여자 한 명 해서 보조 일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실잇기도 했는데, 방직공장은 실을 잘 이어야 해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 거만 했어도 그냥 삼교대에서 그것만 잇고 퇴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다치고 안 되니까 이게 떠돌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이년 정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간 데가 생산3팀인데, 거기서도 처음엔 지원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기계에 실이 떨어지면 가서 이어준다든가 또 어디에서 사람이 안 나와서 없으면 손을 넣어준다든가. 말하자면 포장실에 사람이 안 나왔다고 그럼 포장실 지원 가는 거예요. 포장실이 너무 힘들어서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뭘 했냐면 스트리퍼라 해서, 숨에서 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실을 아주 가늘게, 등산복 같은 걸 만들기 위해 가는 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엄청난 속도 안에서 실이 만들어질 때 애를 감아요. 두껍게 만들어졌던 실의 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손톱이 안 자랐어요. 손톱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걸 한

칠팔년 했죠. 그래도 그 일은 혼자 하니까 옆에서 괴롭히는 것도 덜한 것 같고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오래 그걸 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나 다름없는데 너무 힘들었던 건 제 그 자리를 아무도 안 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흑시나 쉬고 그러면 제 사수나 조장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마스크를 쓰시오, 귀마개를 하시오

기본적으로 방직공장은 정말 힘들어요. 일단 옆에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엄청났어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각장애 있는 분이 진짜 많아요. 목소리 큰 사람은 청각장애 있었을 정도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현장병이죠. 눈도 항상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이게 풍면이 많이 날리거든요. 여기저기 살이 물러터지고……. 그래도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기본 온도가 삼십육도인가 될 거예요. 한여름 되면 사십이도까지 가요. 그걸 여덟시간을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 이리터 넘는 물을 먹어요. 현장에는 다 물병을 끼고 살아요. 군데군데 물도 놔두고 얼음 나오는 거, 제빙기인가? 그런 거 있어도 항상 땀이 줄줄 흘러서 팬티까지 다 젖어요. 이게 살이 짓물러서 상사화 꽃잎이 돼요. 시려요. 엄청 시려. 땀으로 시작해서 땀으로 끝나는 곳이 방직공장이에요. 그리고 먼지.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리는 곳이 방직공장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공정에서 이탈을 못 해요. 이탈한 순간 이게 실들이 엉키고 난리가 나서 기계 전체가 엉망이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구, 뭐 조장한테 부탁하고 가야 하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딱 밥 먹는 거 삼십 분. 근데 그 삼십 분도 만약에 기계 문제라든가 뭐 불량으로 인해서 풍면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밥 먹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예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풍면이 날아다니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얼마나 더 많은 파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장한테 흔한 말로 깨지기도 하고 막 닭달을 당하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거기 보면 벽에 ‘마스크를 쓰시오’ 딱 붙어 있어요. ‘귀마개를 하시오’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더워서 도저히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귀가 아파서, 그것만 끼면 귀가 아프대요. 그런 약조건이었어요, 정말로.

한번은 신종플루였나 메르스였나 그럴 때 제가 지원업무를 해서 밤 근무를 가봤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딱 네시에서 대여섯시 사이예요, 귀신처럼 졸음이 와요. 안 자려고 막 껌도 씹고 해요. 그래도 저절로 무릎이 꺾여요. 그런데 또 아침에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머리가 빙 돌아요.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집에서 꺼먼 천으로 가려봐도 잠이 안 와. 자야 하는데 기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양을 몇 마리를 세보고 술을 마셔보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안 오면 그대로 이제 출근을 해야 해요. 일곱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최소한 여섯시에는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출근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는 거예요. 밤에 출근해서 있으면 다 조용하고 기계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게 너무 서글퍼요. 꼭 곡소리처럼. 그 기계 도는 소리가 통곡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아픔 속에서 지냈을까. 그게 무섭기도 하면서……. 한 삼개월을 해도 그랬는데 삼교대 했던 여성들은 항상 그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삼교대 팔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긋지긋했대요. 가족들한테 명절에 가도 빨리 와야 한다고, 출근해야 하니까. 하루나 이틀 겨우 있다 와야 하고 친구들이 무슨 결혼을 한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모임 있다 해도 갈 수가 없대요. 이게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유나 이런 게 박탈을 당하는 거야, 삼교대란 이유로. 물론 수당이야 있었겠지만. 그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완전 착취 중에 그런 착취가 없어요, 진짜로.

손톱도 닳아지고 무릎도 아작 났어요. 발을 움직여야 기계가 올라가요. 그래야 실을 이을 수 있고 빨 수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이 안 아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늘 바늘에 찔리고 피가 나고. 저하고 한 살 차이였던 입사 동기는 너무너무 지겹다고 퇴사했어요. 매일 업무일지에 오늘 내가 몇 킬로를 했고 뭘 했고 뭘 했다고 다 적어야 하거든요. 그 할당량이 있으니 숨쉴 틈이 없었겠죠. 동기가 힘들다고 일이년인가 채우고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셋이니까 못 하겠다고, 도저히 어려워서, 돈이 궁해서 못 살겠다고 한 삼개월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음료수를 짹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재입사했다고. 근데 세상에 며칠 만에, 이틀 만인가?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걸 처음엔 전혀 몰랐죠. 그전에 하남공장에서 일했을 때는 소득세 낸 적도 없고 사대 보험 가입도 안 됐는데, 그나마 일신방직이 이런 거라도 정상적으로 받게 해주고 사원아파트도 있고. 일신방직 정문 쪽에 풀장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있어서 참 멋있게 봤어요, 처음

에는. 어떻게 이런 일반 회사에서 풀장까지 해줬나 싶어서. 월급도 수습기간에 칠십만 원인가? 많이 준 편이었어요. 수습 끝나니까 백만 원이 넘어갔어요. 전기팀이라 누렸던 호봉도 꽤 됐고. 뭐 특별수당 같은 것도 있었고, 전기학원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못하겠다 싶긴 했지만. 다른 팀 가고 나선 호봉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월급이 그래도 좀 됐죠. 이 년 전에 거의 이백 가까이 됐으니까.⁶³

공장, 인내하는 공간

일신방직에서 일한 건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도전이었어요. 처음 일한 곳이 공무팀이었잖아요. 해본 적 없는 일이지만 도전해본 거죠. 도전 정신이에요. 제 첫시집인 『이카루스의 날개』의 이카루스도 저는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도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일신방직은 제게 인내하게 하는 공간이었어요. 일단은 자식을 키워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로서 강하게 만들었던 곳 같아요, 여성은 아니고. 애들 둘을 키우는데 둘 다 대학을 동시에 가잖아요. 대학원도 다니고. 진짜 천만 원이 흘러넘쳐요. 대출받아요, 가게 대출 같은 거. 집 담보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보내잖아요. 뭐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애들은 애들대로 장학금을 받고 생활자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학자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애들도 노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더 빚쟁이 안 되고 싶어서 빨리빨리 취업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 갚았어요. 다들 지금은 훌가분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몸이 다 망 가져도 다녔죠. 일신방직에서 저는 갱년기, 폐경기까지 맞이하면서 신체 리듬도 다 변해버렸어요.

일신방직 막 들어가서는 여성 노동시를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 난 잘릴 텐데’ 정확하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일이 힘들다 보니 시

⁶³ 정미숙이 입사한 2009년 최저시급은 4천 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급은 세전 836,000원이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 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급은 1,745,150원이다.

를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퇴사하기 전에 빨리 시집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이 힘들 때 마다 시를 쓰게 되었어요. 제 시 속에 『소금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금꽃

날마다 무등산 바라본
높은 담장 안
우리의 텃밭에서
생의 노래
질퍽하게 이어지고 있어라

8시간 어서어서 지나가길 기다리며

앞만 보고

고개만 숙이고

다람쥐 쳃바퀴 돌고 돌아

굳은살 박인 발바닥으로

굳은살 박인 손바닥으로

끓은 땀방울 흐르고 흘러

겨드랑이마저 짓물리고 나서야

소금꽃으로 피어났네

사지육신 뼈마디 마디에서

진액까지 쏟아내고서야

담장 밖으로 밖으로

탈출한 우리들

이 땅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네

어찌 생이 늘 아름답기만 하겠는가

이 수많은 어머니들

비슷비슷한 삶을 함께 노래하기에

어미에게

자식이 신이요 신앙이기에

온 몸으로

뼈 녹아 흘러 흘러 핀

소금꽃

노동자들과 잔치하고 그만둔 회사

평동에 2공장이 있어요. 여기로 차츰차츰 공장을 옮길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계속 잘라나갔어요. 제가 당시에 오십오세가 넘어서 정규직에서 일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쓰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쓸 때는 일년 후에 재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쓰고 몇 개월 뒤에 2공장 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2공장 가는 건, 가는 데만 사십오 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만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도 저는 간다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제 사수가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데도 안 나가고 버텼으니까. ‘그것도 어디냐. 안 잘렸다’ 하면서 이번에도 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 생각했거든요. 간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깜짝 놀라더니 그다음 날 면담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삼일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위로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을 말하면서 저 같은 경우가 없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그동안에 그냥 나갔던 사람들이 또 자기들도 해달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급비밀로 해달라고요. 조건을 듣고 바로 그만두게 됐죠. 이틀 만인 5일에 그만뒀어요. 그렇게 하했어요. 길어지면 말 나올까 무서웠나 봐.

실업급여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못 받고 나간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한 팔십프로는 못 받고 자기가 못 견뎌서 나갔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못 받게 괴롭혀요. 부대끼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 시집 이십권을 갖고 가서

다 나눠줬어요. 과일도 몇 상자 사 가고 케이크도 사 가서 생산 노동자들하고 나눠줬어요. 축복 받으면서 그만뒀죠. 나처럼 이렇게 잔치하고 간 사람이 없었대. 들어왔을 때나 한턱내는 거지. 근데 '그동안 내가 잘살았다' 싶어서 다 주고 왔어요.



2019년 일신방직을 퇴사할 때 받은 십년 장기근속 상장

다른 도시, 다른 노동, 여전한 노동 조건

퇴직금도 받고 위로금 받고 집 파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대출금 다 정리하고 세종시에 전셋집을 얻었어요. 2019년 6월 5일에 이사 갔어요. 큰애가 세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 건너편 아파트 살아요. 세종에서 팔개월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둔산음식나라'라고 직업훈련학원에 다녔어요. 제가 일신방직서 빨리하는 버릇이 들어서 남보다 손이 빨랐나 봐요. 거기서 (소개) 해주셔서 단체급식하는 구내식당에서 아침 아홉시부터 세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2020년 2월 3일에 들어가서 근무한 지는 일년 팔개월 됐어요.

여기도 노동 조건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점심시간 삼십분 말고는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 단 일분도 없어요. 아주 진을 빼놔요.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도 빨리, 그것도 갈 수 있는 때

가 있어요. 급식 준비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끝나고 나서 한 번. 그리고 마무리하고 퇴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또 삼십분 먼저 출근해야 해요. 일찍 나와서 미팅해야지 작업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 시간을, 그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구조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급여도 적어요. 지금 한 달에 백삼십만 원밖에 못 받아요. 뜨거운 불 앞에서 오백 명분 튀김을 해내고 전을 지지고 밥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열두 번씩 그만두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장화 신으면 다리에 물집 생기고 손에는 습진 생기고. 지금도 귀에 기름도 된 자국이 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도 어느새 기름이 튀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질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무인 가게들이 많아지잖아요. 옷 가게도 그렇고 커피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또 달라고 하기도 그래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제 또래인데, 새롭게 노년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하는 제 느낌이 그래요.

노동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투쟁

노동은 저에게 투쟁이에요. 그림도 노동이에요. 시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것은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버스 딱 타면, 특히 세종은 젊은 노동자가 많아서 그들과 같이 시내버스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생각을 해야 하고 깨어나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 딸들한테도 일할 수만 있으면 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의 능력이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당연하죠. 일해야죠. 편안하게 사는 거요?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해요. 이 시대에 여성으로서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여성의 자리가 바뀌고 그러겠어요. 정치가 어찌니 하지만 제 짧은 소견에는 그래요. 그래선지 (아이들이) 다 씩씩해요. 작은 아이는 상경해서 월세로 살다가 스물다섯 살에 전셋집 구하면서 제가 이천만 원 빌려줬더니 오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삼십칠만 원씩 보내서 올해 칠월에 다 갚았어요. 지금은 강아지 키우면서 멋있게 살아요. 연탄 배달도 하고 무료 급식소 봉사도 하고 유기견 봉사도 하면서요. 그 개도 안락사 앞둔 유기견을 데려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아 아이와 결연 맺어서 후원하고 요즘은 오히려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걸 한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집에서 같이 아침 먹으면서 그래요. “해야 한다”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노동자로 살았고 노동시를 썼으니 당연히 참여해주고 어떤 정보가 되든 참여하는 건 너무 좋은 거”라고 계속 권장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직회사 다니는 노동자라는 게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창피했어요. 시로도 다 표현 못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속 시원하지가 않아. 창피하기도 했고 안 잘리려고 썼어요. 그때는 감추려고만 하고 가면을 쓴 것처럼 사람들에게 애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같이 용감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구술하는 건 엄청 용기 낸 거예요. 지금은 십일년을 겪으면서 성숙한 것도 있고 애들도 이제는 다 크고 자리 잡고 하니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사는 곳도 세종으로 옮기면서 용감해진 거죠. 광주에선 움직이지 못했던 걸 세종 와서는 당당하게 나서서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 이게 되더라고요.



정미숙 개인 유화전 <푸른 세종>
2021년 세종 송담관리전시관

저이를 위해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인으로 살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제 두 딸을 낳고 싶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건 이십년 전에도 그랬어요.

어려서는 정말 되고 싶은 게 서점 주인이었어요. 서점 여주인이면 늘 책과 가까이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책의 향기가 묻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를 쓸 줄은 몰랐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문학지회지부장 역할도 하고 편집위원도 하고, 개인적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서울도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작업도 거기서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준비해서 서울에, 만약에 어떤 갤러리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유화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게 서울에 ‘꿀잠’⁶⁴이라는 노동자의 집에 제 첫 그림을 팔아 전액을 기부했던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자들 집이에요. 저는 그걸 기부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 그림을 그려서 기부하는 게 제가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시집만 팔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간혹 그림을 팔면 저는 다 써요. 밥도 사고 신세진 사람들에게 사고…….

얼마 전에는 『2월 그날의 나팔꽃』이라는 시집을 스무 권 사서 나눴어요. 후배⁶⁵가 기록 글 부름으로 전태일 문학상도 받고 한 르포 작가예요. 작년 사월에 ‘앞으로 어떤 일 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해 유월 말인가에 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육사재단에서 유고시집을 낸 게 이 책이에요. 일주년 때 유고시집을 내줬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에 동참해야겠다 싶어서 구천 원석이길래 스무 권 샀는데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이것도 그림 팔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베풀고 싶어요. 고맙잖아요. 관리자들은 꼭 일제 앞잡이처럼 나서서 바람잡이를 하고 녹록지 않게 하지만 노동자는 공동체가 중요하더라고요. 나 챙겨주고 늘 다정한 미소 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나는 또 ‘저 사람을 위해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까’ 생각하고. 그런 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64 2017년 서울 영등포구에 설립된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65 고 서분숙 르포작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벗’(시집 머리말)이 되고자 했다.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하는 정미숙의 모습

생애연보

- 1963년(1세) 전남 고흥에서 육남매 중 둘째로 태어남
- 1970년(8세) 초등학교 일학년 무렵 가세가 기울어 여러 차례 이사 다님
- 1976년(14세) 서울로 이주. 먼저 상경한 오빠와 함께 생활
후에 상경한 남동생과 함께 자취
- 1980년(20세) 직장생활 시작
- 1988년(26세) 결혼과 장녀 출산
- 1992년(30세) 차녀 출산
- 1994년(32세) 광주광역시 두암동으로 이사
- 1997년(35세) 레스토랑 블루마운틴 창업. 오년 동안 운영
- 2000년(38세)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 출간
이후 일곡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강사 활동
- 2001년(39세) 노의웅 화백과 『이카루스』 시화전 개최
- 2005년(43세) 하남공단내 파견회사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
- 2008년(46세) 일신방직 전기팀으로 입사
- 2009년(47세) 포장팀으로 전환 배치되어 삼개월 근무
이후 생산1팀에서 일이년간 지원업무
- 2012년(49세) 생산3팀으로 배치되어 지원업무. 이후 스트리퍼 전담
- 2018년(56세) 일신방직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2시집 『등에 핀 꽃』 출간
- 2019년(57세) 권고사직으로 일신방직 퇴사
큰딸이 있는 세종으로 이주, 현재까지 거주
- 2021년(59세) 세종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 2022년(현재) 세종시 구내식당 퇴사
제3시집 『수제튀김을 할 때마다 새를 생각해』 발간